# 글로벌 경제 동시다발 악재 빈곤국 강타

## 코로나·우크라전·신용경색·中경제둔화…저소득국 빚 쓰나미

## 먹거리·에너지 가격 폭등…"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세계적인 신용 긴축,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기둔화까지….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저소득 빈곤 국가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닥친 위기의 강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 국가엔 이런 전방위적 악영향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광범위한 정치·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는 중·저개발 국가 국민의 삶을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식품 가격이 올라 당장 오늘의 끼니를 걱정하고 연료 가격 급등으로 난방을 걱정해야 하는 고단한 삶은 예멘, 세네갈, 파키스탄, 터키,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더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당장 먹거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밀 등 주식과 조리용 연료, 비료의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에 차질을 주는 모습이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피란을 갔고, 러시아는 식량 수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흑해 항구를 봉쇄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항구 폐쇄로 그렇지 않아도 식량난이 심각한 에티오피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소말리아와 베냉 수입하는 밀의 전량, 탄자니아와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이집트의 밀 수입량에서 최소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제구호위원회(IRC)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과 곡물 부족으로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1천400만명 이상이 기아 위기에 처해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주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곡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삼아 공급을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계속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자원을 쏟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내렸던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위험자산을 좇아 신흥국 시장으로 몰려들었던 투자자는 다시 선진국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신흥국의 화폐 가치는 낮아지면서 이들 국가의 수입품은 더 비싸졌다. 신용경색은 부채가 많은 정부의 차입 비용을 늘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그동안 지구촌 성장엔진으로 불렸던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경 봉쇄를 연장했다. 이에 중국으로 가는 원자재와 부품, 완제품의 수요가 모두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의 국민은 감당하지 못할 부채와 사회적 계층의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는 다국적 농업 기업과 투기 세력이 이런 혼란을 틈타 공급과 수요의 연관성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미 매사추세츠대의 경제학자 자야티 고시는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들불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모든 게 중·저소득국가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핀란드-스웨덴 정상 "나토 가입공동 신청"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오른쪽)가 17일(현지시간) 자국을 공식 방문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함께 스톡홀름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안데르손 총리는 양국이 1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 가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봉쇄에 질린 중국인들 '이민' 검색 400배↑

## "기술 전문직 등 두뇌유출 우려"

## 미국·캐나다·호주 이민 문의 급증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많은 중국인들이 이민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두뇌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전했다.

이민을 모색하는 이들이 주로 정보기술(IT)·과학 업계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들이라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 과학 기술 강국을 향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두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이민'이라는 검색어의 조회수는 전달보다 400배 급증했고, 비슷한 현상이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에서도 벌어졌다.

이민과 유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징 잉중 법률사무소의 궈스쩌 씨는 지난 3월말 이후 업무가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궈씨는 "지난 한달 고객이 급증하면서 우리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고객은 전문기술 이력을 가진 이들이다.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전문직 인재들은 향후 수입과 발전에 대한 희망을 제약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이 기존에 인기가 있던 미국의 EB-5 비자 보다 EB-1에 더 관심을 갖는다며 "많은 고객이 화웨이 같은 빅테크의 엔지니어들이거나 기술기업과 제약업계 중역들"이라고 밝혔다.

EB-5 비자는 최소 90만 달러 투자가 요구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그간 부유한 중국인들이 많이 신청했다.

EB-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주로 유명한 연구업적이 있는 학자, 다국적 기업의 중역, 올림픽 출전 선수, 오스카 등 유명한 상을 받은 연예인 등이 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다.

북미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위양지환의 광저우 사무소 대표 잭 호도 지난 3월말 이후 이민 문의가 전년 동기보다 60~70% 급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청바지 더는 못참아"

## 美레스토랑 드레스코드 적용

## 거리두기 끝나자 옷차림 권고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가면서 다시 고객에게 드레스코드(복장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년간 미국 전역에서 최근 몇 곳의 식당이 고객의 옷차림을 규정하고 나섰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세 마리의 말'은 고객에게 방문 전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적절한 만찬 복장을 착용하고 뉴욕 도심 스타일을 즐기기를 기대한다"며 청바지, 반바지, 운동화는 '절대 금지'라고 안내했다.

이 식당의 엔지 마르 셰프는 "내가 사랑하는 고전적인 멋스러움을 지난 5~6년간 뉴욕에서 볼 수 없어 너무 안타깝다. 그 멋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올리베타'는 고객에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드레스코드를 강력히 시행한다"고 경고성으로 권유했고, 댈러스의 '캣버드'는 "'스마트 캐주얼'(깔끔한 평상복)이나 그 이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연합뉴스

시진핑 주석에 구명 호소하는 우크라 여인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아조프스탈) 제철소에 포위돼 있는 군인들의 부인과 어머니들이 피켓을 들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구명에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 승인

## 원자력규제위 "안전성 문제 없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물을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춰 태평양에 배출하기로 2021년 4월 방침을 정했으며 도쿄전력이 이에 따라 마련한 세부 계획을 규제 당국이 승인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을 심사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심사서안을 18일 승인했으며 의견 공모를 거쳐 이를 정식으로 인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2019년 환경오염으로 900만명 조기 사망"

## 국제학술지 란셋 조사

2019년에만 전 세계 900만명이 환경오염으로 조기 사망했으며, 대기오염과 납 중독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국제 의학학술지 란셋의 '오염 및 건강 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계 건강에 대한 환경오염의 영향이 전쟁, 테러, 말라리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결핵, 마약, 음주보다 훨씬 크다"며 "환경오염이 인간과 지구의 건강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2019년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6분의 1인 약 900만명이 환경오염 탓에 숨졌으며, 이는 2015년 조사 이래 변하지 않은 수치라고 란셋은 설명했다. 또한 약 670만명의 사인이 공기오염이었으며, 이는 화석 및 바이오 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와도 얽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실내 공기오염이나 오염수 음용에 따른 사망은 줄어든 반면, 아시아 남부 및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및 화학적 오염 등 산업화와 연관된 조기 사망이 늘어났다.

2019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450만명으로, 2000년 290만명, 2015년 420만명보다 증가했다. 특히 납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90만명에 달하는 등 화학적 오염도 증가 추세로, 이 같은 수치도 상당히 저평가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합뉴스